

원고 교열의 실제

임 동 훈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사)

1. 집필 지침 및 집필 지침 설명회

1994년 3월께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의 집필 지침이 완성되고, 4월 15일에 처음으로 집필 의뢰를 하였다. 외부 집필 위원은 전문 집필 위원과 일반 집필 위원으로 구분 되는데, 전자는 주로 시간 강사를 하고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고, 후자는 대학에 전임 이상으로 계신 분들이다.

집필할 때 제공하는 자료는 집필 지침, 기존 사전들에서 해당 표제어를 오려붙인 카드, 연구원에서 축적한 용례, 집필 의뢰 목록이다. 따라서 집필 위원이 집필할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집필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집필 지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전 작업에 대한 관심이 사전 원고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집필 의뢰를 할 때에는 약 두 시간에 걸친 집필 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만, 집필 위원들이 사전(辭典)에 대한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집필 지침 설명회에 참석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집필 지침에 관한 내용이 전달되었는지는 의문이었다.

처음 집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에게는 약 두 달 간의 시험 집필 기간을 두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집필한 사전 원고를 모두 교열하여 집필자에게 다시 되돌리며, 집필자들은 교열되어 다시 돌아온 원고를 편찬실에서 교열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한다. 즉, 이 기간은 집필자로 하여금 집필 지침의 내용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하는 기간인 것이다.

4월 15일에 처음 집필 의뢰를 하였을 때에는 전산 입력에 관한 확고한 방침이 없었다. 따라서 집필 원고 양식을 인쇄하여 이를 이용하여 집필케 하였으나, 그후 전산 입력을 하는 것이 사전 편찬의 전체 구도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전산 입력 방식으로 사전 원고를 집필케 하였다.

전산 입력 방식은 얼마 안 있어 도입될 중형 컴퓨터로의 자료 이송을 염두에 둔 것이나, 사전 원고의 관리 및 교열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이었다. 전산 입력 방식에서는 집필자 주석을 달 수 있는 기호가 마련돼 있어 집필자가 집필하면서 사전 편찬실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집필자 주석의 내용은 1994년 8월에 집필 지침이 수정될 때 많이 반영되었다.

2. 교열반 구성 및 교열의 성격

교열반은 8월 8일에 구성되었다. 이전에는 사전 편찬실 내 뜻풀이부에서 함께 해 오던 일이었는데, 집필 의뢰 작업과 교열 작업이 분리될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집필 의뢰반과 교열반으로 나뉜 것이다. 연구원 1명, 편수원 4명(나중에 5명이 됨)으로 구성된 교열반은 2층 회의실 한 칸에 별도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이내 교열이 전문화되었다.

그러나, 이때의 교열 역시 본격적인 교열이라기보다 집필자 관리를 위한 교열이라는 성격이 강했다. 외부 집필 위원이 집필한 사전 원고가 도착하면 교열반에서는 고작 그중 20% 정도를 뽑아 표본 교열을 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원고 완성을 위해 교열을 본 것이 아니라 집필자 관리를 위해 교열을 본 것이다. 즉, 잘못된 부분을 완전히 고쳐 주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집필지침 몇 쪽 참조”나 “문형 정보가 빠져 있습니다.”, “뜻풀이와 용례가 맞지 않습니다.” 형식의 내용으로 교열을 보기도 했던 것이다.

진정한 교열은 집필된 사전 원고를 정해진 집필 지침에 따라 충분히 교열하여, 컴퓨터에서 수정 입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교열하는 것은 반대말, 비슷한말 따위의 관련 어휘나 동의어들을 교차 확인하여 각각의 뜻풀이 번호를 찾아 써 주고, 인용문 용례를 현행 어문 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등의 일이 포함된다. 이 시기에 행한 집필자 관리를 위한 교열에서는 이러한 교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처음에는 이러한 교열의 성격과 관련하여 교열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만이 형성되었다. 집필자 관리를 위한 이와 같은 가교열(假校閱)방식에서는 교열의 의의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체제에서는 교열자가 교열을 해도 이것이 원고 완성을 통해 사전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집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집필자의 집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도 아니었다. 비록 집필자가 가끔 교열반으로 찾아와 교열자와 대화하기도 하

지만 이것만으로는 집필자의 집필 수준을 향상시킬 수는 없었다.

더구나, 일부 집필자들은 갈수록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사전 원고를 집필해 오기 시작했다. 연구원에서 제공한 용례를 거의 이용하지 않거나 기존 사전 중 몇몇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거나 하는 집필 원고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교열자에게는 이러한 원고를 완성시킬 여건도, 이러한 집필자들을 통제하는 권한도 주어지지 않았다. 교열자들은 하릴없이 가교열만, 그것도 표본 교열만 볼 뿐이었다.

그러나, 교열자들의 불만은 11월에 들어서면서 일부가 해소되었다. 교열의 방식이 적잖이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이때부터는 집필된 원고를 바로 접수하지 않고 가접수한 다음, 교열반에서 가접수된 원고의 20%를 표본 교열한다. 표본 교열에서는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집필 원고를 교열이 필요치 않은 원고, 교열이 필요한 원고, 재집필해야 할 원고로 분류하며, 이때 재집필해야 할 원고가 교열한 전체 원고의 20%를 초과할 때에는 전체 원고의 재집필을 요구한다. 그리고, 재집필해야 할 원고가 교열한 전체 원고의 20%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이 원고를 의뢰·접수반으로 넘겨 정식으로 접수케 한다. 이러한 교열 방식의 변화는 1994년 11월 11일 이후에 의뢰한 원고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그 후 집필자들의 집필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3. 교열 과정 및 교열 평가

집필 지침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수시로 회의를 열어 그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때 마련된 집필 지침 및 교열 지침은 준말과 약어의 구분, 동의어의 범위, IC 분석의 기준 등이 있다.

기존 사전에서는 ‘밭사돈’, ‘갯신’ 따위를 ‘바깥사돈’, ‘가족신’ 따위의 준말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바깥’, ‘가족’이라는 어형이 ‘밭(畓)’, ‘갯’의 후대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존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들의 관계를 동의어로 처리하되, 그 뜻풀이는 더 일반적인 어형에서 하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교열을 보면서 준말과 동의어의 구별뿐만 아니라 준말과 약어의 구별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에 준말은 일부 음운이나 일부 음절이 떨어져 줄어진 것으로, 약어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표제어에서 일부 음절을 뽑아 만든 단어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걷다’는 ‘거두다’의 준말이지만, ‘공단(工團)’은 ‘공업 단지(工業團地)’를 줄여 이르는 말이 된다.

기존 사전에서는 IC 분석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았다. 가령 대다수 사전에서는 한자 성어인 ‘조족지혈(鳥足之血)’ 따위도 기타의 국어 어휘와 마찬가지로 IC를 분석하여

‘조족지-혈’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서 IC를 보이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다. 사전의 표제어에서 IC를 보이는 일은 해당 표제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아가 그것이 다른 표제어와 맺는 관계를 쉽게 드러내 주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IC 분석의 기준으로 두 가지를 세웠다. 하나는 영어나 한문 문법 체계와 같은 외국 문법 체계가 아니라 국어 문법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단어나 접사를 IC 분석의 기준이 되는 문법 단위로 삼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은 IC 분석하지 않는다. ‘조족지’나 ‘혈’은 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단어도 아니고 접사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국어대사전’에서도 이와 같이 표제어의 IC를 보이도록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개굴-개굴’처럼 두 직접 성분의 경계가 음절 사이에 놓일 때는 이를 보이기 쉽지만 그것이 ‘개구리’에서처럼 음절의 내부를 가로지를 때에는 이를 표제어에 직접 표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고 표제어를 ‘개굴-|’나 ‘개구리-|’로 표기하는 것은 어문 규정을 정확히 제시하고자 하는 새사전의 편찬 목적에 어긋난다. 그리하여 사전편찬추진위원회에서는 이 직접 성분의 표시를 표제어의 표기보다는 어원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하도록 권하고 있다.

또 사전편찬추진위원회에서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근거로 하여 띄어쓰기에 관한 내용을 표제어에 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였다. 맞춤법 49항, 50항에서는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나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도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사전 표제어에 반영할 만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쓸 수 있다는 정보를 ‘ˆ’로 표기하여 표제어에 반영하는 방법을 시험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모음 조화(母音調和)’는 ‘모음ˆ조화’로 표기하게 될 것이다.

8월에는 3월에 나온 집필 지침의 문제점이 상당히 축적되어 수정된 집필 지침을 발간 하였다. 집필자가 주로 틀리는 부분은 집필 지침이 불충분한 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집필자들은 뜻풀이, 용례, 문형 정보, 관련 어휘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듯하였다. 뜻풀이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전에서는 대체로 호흡이 길고 어려운 한자어가 쓰인 경우가 많았다. 이에 우리는 뜻풀이 할 내용이 많은 표제어는 간결한 기본 뜻풀이와 추가 뜻풀이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권장 하였다. 또, 용례는 제2의 뜻풀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제어에 따라서는 뜻풀이만으로 그 표제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전형적이고 적절한 용례를 수록하여 뜻풀이를 보충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집필된 일부 원고에서는 뜻풀이와 용례가 어울리지 않은 경우가 적잖이 눈에 띄었다. 연구원에서 제공한 용

레는 그것이 뜻풀이를 이해하거나 보충하는 데 적절하고 전형적인 경우에만 인용문으로 등재하여야 함에도, 일부 집필자들은 이를 구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인용하기도 하였다. 인용문 중에서 그대로 인용하기에 부적절한 것은 약간 손질하여 작성문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문형 정보는 우리 사전에서 처음으로 제시되는 정보란 점에서, 집필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였다. 문형 정보를 충분히 제시하기 위해서는 문형 정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못지 않게 용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예컨대, 기존 사전에서는 '각오(覺悟)하다'를 단순히 '동(자)(타)'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독자들에게는 자동사니 타동사니 하는 범주가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정보도 불충분하기 짝이 없다. '각오하다'가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철수는 교원이 되기로 각오하였다."에서처럼 '-기' 보문을 보어로 취하는 경우이며, '각오하다'가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터에 나간다."에서처럼 명사구를 보어로 취하는 경우이다. 즉 독자들에게는 '각오하다'가 어떻게 쓰이는가가 중요하지 그것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는 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사전에서는 '동(자)(타)'라는 정보 대신 '동【-기로】. 【…을】'식의 정보를 제공한다.

수정된 집필 지침이 발간된 8월 이후에도 집필 지침에 대한 문제점은 자주 드러났다. 이에 우리 교열반에서는 1995년 2월 말쯤에 최종본 집필 지침을 낼 계획이다. 아마 이때쯤이면 더욱 진전된 집필 지침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열반에서 하는 교열의 성격은 집필자 관리를 위한 가교열(假校閱)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집필자가 엉터리로 집필해 와도 어떻게 규제할 방도가 없었다. 더구나 이러한 집필자들은 교열자와의 대화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11월 들어 '가접수 → 교열 → 접수' 방식으로 접수 및 교열 방식이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되었다. 역시 원고의 집필 수준은 학력 따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도와 관심에 비례함이 입증된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국립국어연구원에서 편찬하는 '종합국어대사전(가칭)'은 97년에 발간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사전 편찬의 전 분야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교열도 예외가 아니다. 출간 시기를 기준으로 역산하면 본격적인 교열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1995년 3/4 분기까지는 현재처럼 집필자 관리의 교열이 행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교열해야 할 내용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와 ‘ˆ’ 기호 표시의 재처리, 활용 정보의 검토. 문형 정보 재처리, ‘한자어 어기+하다’ 표제어와 ‘한자어 어기’ 표제어의 뜻풀이 조정, 준말 및 동의어 구분의 재검토, 관련 어휘의 교차 확인 및 어깨번호 달기, 인용문 용례의 수정 및 표기 교정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내에서 교열해야 할 부분과 원외에서도 교열할 수 있는 부분을 갈라, 원외에서 교열할 수 있는 부분은 원외 교열자를 선정하여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 물론, 원외 교열 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교열의 성격상 사전의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내 교열 팀과 원외 교열 팀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많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